



소개

에트모스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텔루리움 바이 마크 뉴슨

역사상 가장 정교한 에트모스 칼리버를
재해석한 작품

주요 특징:

- **글라스 내부의 눈부신 천체:** 주요 별을 표시하는 539 개의 카보송 컷 사파이어 세팅과 인그레이빙으로 구현한 별자리 지도
- **정교한 기계적 걸작:** 텔루리움에 월, 계절, 조디악 캘린더 인디케이션을 적용한 칼리버 590
- **독보적으로 정밀한 달의 위치:** 5,770 년이 지난 후에야 단 하루의 오차가 발생할 만큼 탁월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문페이스
- **마크 뉴슨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 아이코닉한 디자이너의 협업을 이어가며, 독특한 비전을 통해 시간 측정과 디자인의 조화를 재해석한 최신 제품

2022 년, 에트모스 히브리스 메카니카 텔루리움 칼리버 590 을 선보인 예거 르쿨트르와 저명한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정교한 에트모스의 두 번째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사파이어가 세팅된 유리 구체를 장착한 단 3 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피스는 에트모스 텔루리움 칼리버 590 에 마크 뉴슨의 비전을 담아 재해석한 작품으로,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진행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예거 르쿨트르 에트모스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공기를 동력 삼아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타임피스

1928년 스위스 엔지니어 장 레옹 휘테가 개발하고 르쿨트르 & 씨(현 예거 르쿨트르)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춘 에트모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별도의 와인딩이나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클락'으로 알려진 에트모스는 주변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서 에너지를 얻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밸런스 휠을 움직입니다. 핵심은 밀봉된 가스 캡슐에 있으며, 얇은 멤브레인을 통해 태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서 멤브레인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작동하며 태엽을 감고, 그 결과 극소량의 에너지로도 밸런스 휠이 1분에 한 번씩 왕복 진동하게 됩니다. 섭씨 1도의 온도 변화만으로 클락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에트모스 메커니즘은 이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독창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었고, 이는 초기부터 클락의 정체성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정체성을 지닌 에트모스는 예술적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였으며, 예거 르쿨트르는 1970년대부터 여러 선구적인 디자이너 및 전통 공예 장인과 협업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클락을 재해석해 왔습니다.

마크 뉴슨과의 새로운 협업

예거 르쿨트르와 호주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은 2008년부터 협업을 이어 왔으며,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해 뉴슨이 “복잡하고 마법 같은 오브제”라 묘사한 에트모스를 고유의 시선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협업을 통해 2008년의 칼리버 561, 2010년의 칼리버 566, 2016년의 칼리버 568 등 다양한 칼리버가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마크 뉴슨은 10대 초반에 에트모스를 처음 본 순간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에트모스의 특성에 주목한 그는 오브제 본연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정교한 디자인 변화를 더합니다.

마크 뉴슨은 예상을 뛰어넘는 소재를 활용하며 기술적인 관습에 도전합니다. 아날로그 오브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비전은 기능과 형태 모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작품, 즉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향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태양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새로운 디자인

칼리버 590 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에트모스 무브먼트로, 독보적으로 정밀한 기술을 통해 지구, 태양, 달의 회전을 입체적으로 재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된 3 차원 기계 장치를 기리며 클락에 텔루리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텔루리움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그리고 달의 자전과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을 고스란히 재현해 냅니다. 18 세기부터 워치메이커들은 이 텔루리움을 정교한 클락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형 천체: 태양계 너머에서 만날 수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에서 영감을 받은 마크 뉴슨은 애트모스 텔루리움을 위해 새로운 캐비닛을 디자인했습니다. 북반구에서 주로 관측되는 64 개의 별자리를 인그레이빙한 완벽한 유리 구체 위, 주요 별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539 개의 카보송 컷 사파이어(32 캐럿)를 세팅했습니다. 마크 뉴슨의 디자인은 새로운 소재 활용 방식에서 차별화되며, 이를 위해 실험 및 공정 개발 과정을 거칩니다. 애트모스 텔루리움의 경우, 글라스 외부 표면에 직접 잼스톤을 세팅하여 둥근 형태로 3 차원 효과를 연출하는 “인비저블 세팅”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와 수차례의 반복 작업을 거쳤습니다.

천체를 형상화한 이 *예술 작품*은 달 표면을 재현한 레이저 인그레이빙 플레이트, 그리고 다이얼의 블루 톤과 통일감을 주는 다크 블루 컬러의 양극 산화 알루미늄 베이스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역동적인 예술성: 칼리버 590 의 경이로운 정교함과 기술적 섬세함을 오롯이 담아낸 메커니즘의 핵심 부품들은 다채로운 장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수공 미니어처 페인팅을 거친 입체적인 지구는 탁월한 깊이감과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달 표면은 레이저 인그레이빙으로 표현했으며, 지구-달 링에는 운석을 인레이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크 뉴슨은 아연 도금 처리한 알루미늄으로 아워 및 미닛 링을 완성하고 무브먼트 플레이트와 밸런스 휠을 브러싱 처리하는 등, 새로운 애트모스 텔루리움에 보다 혁신적인 마감을 더하여 전통미와 현대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전체 클락은 블루 컬러의 카프 레드 받침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듈러 케이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받침대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클락을 디스플레이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케이스는 밀라노의 저명한 가죽 공방인 세라피안에서 수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죽에는 이탈리아 공방에서 1947 년 개발한 수공 직조 공법인 시그니처 *모자이크*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글라스 아래에 투영된 영원

탁월한 기능 소개: 칼리버 590 은 텔루리움 기능과 더불어, 월 및 계절 디스플레이와 조디악 캘린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달의 자전에 따른 위상을 극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며 오차는 5,770 년 중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움직이는 캘린더: 시간과 분을 나타내는 클락 다이얼은 2 개 층으로 구성된 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단 층은 고정된 상태로 아워 및 미닛 트랙과 계절을 표시합니다. 숨겨진 두 번째 층에는 월이 표시되어 있으며, 회전하면서 6 시 방향의 창을 통해 현재 월을 보여줍니다. 이 페리페럴 링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별자리를 각인한 반투명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털 디스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의 중앙에는 폴리싱 처리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선레이 모티프로 태양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긴 광선은 현재의 별자리를 가리킵니다.

지구와 달의 하모니: 웨지 형태의 평행추와 밸런스를 이루는 페리페럴 링 근처에, 작은 테두리를 따라 운석을 장식한 투명한 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디스크를 배치하고 그 위에 구체 형태로 회전하는 지구와 달을 장식했습니다. 지구는 하루의 길이와 같은 24 시간 동안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여 낮과 밤을 표시하고, 달은 삭망월 1 달 동안 축을 중심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문페이즈를 재현합니다. 달이 한 주기를 마치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평균적으로 29 일 12 시간 44 분 2 초가 소요됩니다.

정확한 계절 변화 표시: 지구 및 달 서브 다이얼은 1 년 동안 중앙에 위치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며 계절의 순환을 표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그레고리력 기준의 365.2425 일에 가까운 365.246 일 주기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390 년 중 단 하루에 불과한 차이이므로, 클락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한 2416 년까지 캘린더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손꼽히는 애트모스 텔루리움 칼리버 590 바이 마크 뉴슨은 놀라운 미적 감각과 기술력을 토대로 아름다운 스타일과 탁월한 정확성을 실현하여, 은하계의 장엄함을 담아냈습니다.

상세 정보

애트모스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텔루리움 바이 마크 뉴슨

크기: 270 x 285mm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90



진동수: 60 초마다 2 회 진동

기능: 시간, 분, 텔루리움, 조디악 캘린더, 월, 계절, 고정밀 문페이스(5,770 년마다 하루 오차), 낮/밤 디스플레이

캐비닛: 글라스, 인그레이빙 및 539 개의 카보숏 컷 사파이어 세팅(~32 캐럿)

다이얼: 양극 산화 블루 알루미늄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레퍼런스: Q5765310

3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마크 뉴슨 소개

마크 뉴슨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술과 조각이 어우러지는 지점, 즉, 정밀함이 움직임을 만나고 기능이 형태가 되는 지점에서 오브제를 창조해냅니다. 그의 작품은 유려한 라인, 정교한 소재,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이 특징입니다. 마크 뉴슨은 과감한 단순함과 첨단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항공, 자동차, 기술, 럭셔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브랜드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혁신과 장인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예거 르쿨트르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뉴슨은 애틀모스와 메모박스 같은 아이콘들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것을 덮어쓰기보다는 그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한 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 기억과 창조 사이를 잇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크 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은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호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예거 르쿨트르를 깊이 동경해 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하고 일관된 디자인 유산을 이어가며,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평생 타임피스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예거 르쿨트르와 여러 차례 협업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2008 년부터 애틀모스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작업은 메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트모스 소개

1928 년에 탄생한 에트모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여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입니다. 에트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온도의 변화로 인해 구동됩니다. 섭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성능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에트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트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라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특별한 에트모스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